

활기찬 오늘이 있기에 더 발전된 미래가 있다

우리가족 한미당

이리지부

오늘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거울이다.

1958년 창립해 9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불과하지만

회원의 친목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결집력으로 조직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리지부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하는 지부이다.



김관식 지부장



김교선 부지부장



김민섭 이사



주춘근.총무이사

서울을 출발해 호남 지역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디디게 되는 곳이 있다. 남쪽으로 길게 뻗은 철도가 이곳에 이르러 호남선과 전라선이라는 제각기의 이름을 얻고 고속도로 역시 이곳을 지나는 교통의 요지 이리.

이리는 또한 유유히 흐르는 만경강과 끝간 데를 모를 정도로 펼쳐진 평야의 포근한 품속에 자리하며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이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들어선 이리의 첫 느낌은 찜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공업단지외 농촌과 상업 도시로서의 면을 갖고 있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생동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짧은 역사지만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지부

이리지부(지부장 김관식)가 창립된 것은 1987년, 올해로 9주년을 맞는다. 여타 조직

36평 규모의 사무실 마련과 이사, 지역장 제도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다양한 공동 구매 사업, 활발한 사회 활동, 기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은 활력있는 이리지부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짧게는 십수년에서 길게는 20여년의 연륜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현재 23만여명 인구를 자랑하는 이리시의 규모로 볼 때 지부의 역사는 짧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처럼 뒤늦은 출발에 비해 급성장해 탄탄한 토대를 갖춘 조직이 이리지부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외형에 불과하다고 평가할지 모르나 이런 사실은 지부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다.

2년까지만 해도 사무실조차 없던 이리지부가 연관 업체와 회원이 힘을 모아 사무실과 회의실을 갖춘 36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지부 활성화를 위한 회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하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회원 친목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리지부는 총 22동(洞)에 67여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 체계와 활발한 활동을 위해 이리지부는 지부장, 부지부장들을 비롯해 이사와 지역장, 기술·기획·홍보·교육·위생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중 눈에 띄는 것이 이사와 지역장 제도이다.

타 조직의 경우 회원 의견 수렴과 행정 사항등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역장 겸 이사가 통일돼 있는데 비해 이리지부는 별도 이사와 지역장을 두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은 지역장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몇개 업소를 전담케 해 회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달

사항이나 회비 수납까지 도맡음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또 이사 제도로 회원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므로써 상호 전달 창구의 문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리지부는 매달 월례회를 갖고 이사와 지역장이 참가한 가운데 시청, 도청의 위생 관련 사항이나 제과업에 관련된 최신 정보등을 전달하고 지역별로도 2달에 1번씩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있다.

친목이 돈독한 것이 제과업계의 보편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리지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업소별로 모임이 결성돼 있어 친목을 다지고 애경사를 같이 하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지부 차원에서 회원 친목을 위해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인근 전주, 군산 지회 지부와 합동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업체 시찰 및 전람회에 전 회원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하는 사실은 이리지부의 결집력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밖에 이리 지부의 활동은 다양하고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동 구매 사업, 사회 활동, 재활용 제도 실시, 세미나 등이다. 먼저 회원 이익을 위해 펼치고 있는 공동 구매의 경우 일반적인 쌀, 호두 등 외에도 업체와 연관해 케이크, 잼, 케이크 상자등의 품목을 지부 차원에서 실시, 짙 가격에 좋은 제품을 회원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 이사회를 통해 연 4회 불우 이웃돕기를 결정하고 불우 이웃 단체 9개를 선정해 업소당 200개의 제품을 제조, 1만 2,000개의 빵을 전달하고 있으며 자연 보호 캠페인으로 쓰레기 줍기에 참여해 대외적으로 제과업계 대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리지부는 재활용에도 선도

**이리지부는 앞으로 총50평 규모의
세미나실을 마련해 수시 세미나 개최로
기술향상을 꾀할 예정이며
주부 대상 세미나로 실시해 소비
확산에도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나 이리지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재활용에 솔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시행 초기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젠 회원 업소 모두 동참하고 있으며 배출 쓰레기가 1/2 정도로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 50평 규모 세미나실 마련
기술향상 계획**

이밖에 지역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5년전만 해도 이리 지역의 기술 수준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조금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회원 업소를 이용해 2달에 1회 정도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내 원광대 식품 영양학과 시설을 이용해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빵 강의를 함으로써 제과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9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회원 친목과 여기에서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사무실 마련과 공동구매

사업, 활발한 사회 활동, 재활용 선도, 발전을 위한 왕성한 세미나 실시 등 단단한 토대를 구축한 이리 지부는 올해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구상인데 세미나실을 새로 마련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는 그동안 세미나실이 없어 회원업소를 빌려 실시하는 까닭에 장소, 참석 인원 한계 등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리 지부는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4층에 50평 규모의 조립식 세미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세미나실이 마련되면 수시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 향상을 꾀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주부 대상 세미나도 열어 제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소비가 가일층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이리 지부는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조직이다. 비록 9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럼으로써 의욕적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오늘날의 이리 지부를 일구어 낸 사실에서 살아 꿈틀대는 역동감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리 지부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생동감이란 단어는 오늘의 활동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대가 있기에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울이 오늘이듯이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된 이리지부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 박종선)



배근례 이사

정대성 지역장

최광수 지역장

유찬우 지역장

김권희 기술분과위원장